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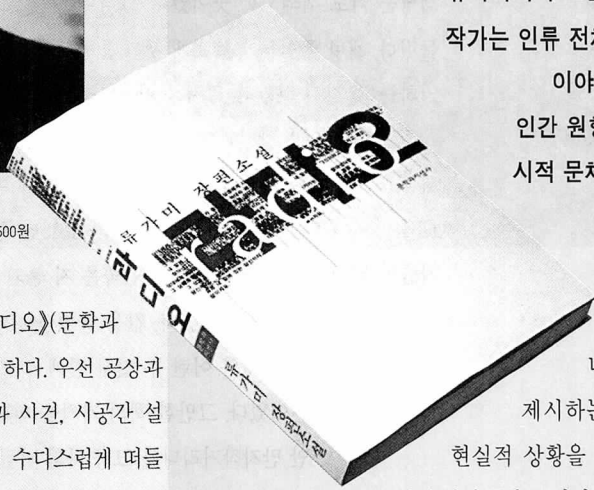
타인과의 소통 꿈꾸는 사춘기 소녀의 성장기

《라디오》 펴낸 류가미씨



류가미씨

문학과지성사/A5신/308면/7500원



류가미씨(34)의 전작 장편 《라디오》(문학과지성사)는 여러 측면에서 특이하다. 우선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인물과 사건, 시공간 설정이 그렇다. 마녀가 등장해서 수다스럽게 떠들고, 마을 옆 숲 속으로는 우주선이 추락한다. 그런가 하면 '제국' 질서에 반대하는 사막의 비밀 결사가 은밀한 모임을 갖는다. 소원을 들어주는 칼과타루 나무, 말하는 고양이도 등장하는 부분에서는 동화를 읽는 듯한 착각도 든다. 반면 글의 내용은 꽤 무거운데, 한 조숙한 사춘기 소녀의 '심란한' 성장기를 다룬다. 사람과의 관계, 죽음, 가족, 사랑 등 원초적인 문제들이 알몸으로 등장해 독자들을 괴롭힌다. 철학 이론서 한 페이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난해한 사변도 곳곳에 잠복해 있어 독서를 지연시킨다.

신화적 상징과 우의로 '원형' 탐구해

“외부 사건들과는 무관하게 나타나는 내적인 충격, 그로 인한 한 개인의 고민과 방향, 극복과정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을 정면으로 다루다보니 자연스럽게 상징적인 이야기가 됐습니다. 신화에서도 모티프를 차용해서 썼죠.”

소설 전체의 틀은 프시케 신화에서 빌려왔고, 주인공의 비극적 운명은 어머니를 찾아나서는 페르세우스 신화를 염두에 뒀다. 주인공 '진'과 '문수'는 각각 관음보살과 문수보살을 상징한다. 신화적 틀 속에서 서사가 전개되고 심리적 인과관계로 이야기들이 묶이다보니 현실논리는 무시된다. 류씨의 소설을 읽는 첫번째 독법은 그

류가미씨의 소설은 상징적이고 우의적이다. 한 소녀의 성장기를 통해 작가는 인류 전체가 안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파고 든다.

이야기 전체 틀을 신화에서 빌려온 그는 각 인물의 행동에 인간 원형의 모습을 심어놓는다. 분위기도 다분히 몽환적이다. 시적 문체와 묘사가 작품의 비현실적 질감을 더욱 증폭시킨다.

녀가 제시하는 비현실적 상황을 견뎌내며 받게 받아들이는 일이다.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기억의 집'과 '얼음과 강철의 도시'로 나뉜다. 기억의 집은 진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살았던 모성의 공간이다. 진은 이곳에서 '문수'와 '마마'를 만나고 그들의 보살핌 아래 세상을 배운다. 마마는 진이 '라디오'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라디오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진의 특별한 능력을 일컫는 말이다.

“진은 라디오지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녀의 컷전엔 혼선된 잡음으로 가득 하죠. 하지만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소통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충분히 노력하고 다가가면 서로의 '채널'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진은 진정한 라디오가 되기까지 많은 영적인 스승들을 만난다. 400년 전 사람으로 종교재판에도 회부된 적이 있는 미셀의 방문을 시작으로 순진한 건달 닉, 독설가의 혀를 가진 자드키엘, 선악의 모순 충동으로 자아가 분열한 고양이씨 등이 진 옆에 머물다 간다.

얼음과 강철의 도시는 '제국'을 상징한다. 이곳은 현실논리가 관철되는 삭막한 공간으로 그려진다. 진은 16살이 되면서 '문수'와 함께 그곳

에 나가 살며, '자드키엘' '어부' '고양이씨' 등과 사귀지만 곧 쓰디쓴 배신을 맞는다. 사랑하는 연인 '어부'에게 당한 배신은 큰 충격으로 남았다. 언어능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상처입은 진은 다시 기억의 집에 돌아오고, 신문 교정원으로 살아가며 인내와 관용을 배운다.

인간의 보편적 문제에 대한 견직한 접근

“자아와 타자, 용서와 사랑, 관용과 분별 등이 소설이 말하는 바는 지극히 진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애써 모른 척하고 있을 뿐 그것들은 인간의 영원한 문제이자 본질인 '원형'입니다. 진부하다고 폄하된 주제 가운데 대부분은 참신한 것들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죠. 구태여 세상에 대해 어른 행세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는 류씨 나이 서른에 쓴 소설이다. 여기에 일종의 중간결산이라는 의미도 있다. 특히 심리학도로서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마음을 읽는 소녀 진의 모습은 작가의 판박이로 느껴진다. 못다 이룬 시인의 꿈은 시적인 문장을 작품 전체에 흐르게 했다. 또 류씨 개인사의 아픈 부분도 은밀히 발설한다. 어머니 상정이 그것이다. 류씨는 애증과 불화로 남은 어머니가 “평생 안고 가야 할 나만의 신화가 될 것”이라 말한다. 아직은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의 재료로 삼을 생각은 없지만 나중에 용기가 생기면 '어머니'를 주제로 한 소설을 한편 쓸 생각이다. 그녀는 현재 우주와 우주 사이를 시간여행하는 장편 하나를 막 탈고했다. - 강성민 기자